

# 한남3구역 품은 현대건설, '재개발 명가' 명예 회복

이달까지 총 9개수주 3.2조 실적  
지난해 동기 대비 2배가량 증가

롯데건설 수주실적 1.5조 '2위'  
대림산업 5387억으로 뒤이어

현대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아파트 사업의 시공권을 획득하며 올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로 올라섰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이번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포함해 올해 6월까지 총 9개 현장을 수주하며 3조2764억원의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지난달은 평균 같은 1구역 시공권을 가져간 롯데건설은 수주금액 1조588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월~6월까지 총 6개 사업지를 수주하며 7532가구 규모 1조5558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는 3조원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총 공사비는 1조 7377억원으로 이 중 대안 공사비로는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에 제안한 '디에이치 한남' 투시도

/현대건설

1797억원을 책정했다. 단지명으로는 '디에이치 한남'을 제시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림산업은 올해 총 3건의 수주권을 따내 총 5387억원의 수주잔고를 기록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5곳에서 9113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GS건설은 지난 1월에 3297억원 규모의 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 1곳을 수주

했다. 최근 '자이 텃밭'으로 일컬어지는 반포 지역 내 신반포21차 재건축에서 포스코건설에 패했다. 지난해 전국 총 6곳에서 8311가구 규모의 정비사업 수주권을 따낸 것에 비하면 저조한 편이다. 당시 총사업비는 1조6915억원 가량이었다.

지난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입찰하며 3파전이 펼쳐졌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강남구청 측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총회를 진행하며 논란을 빚었지만 전반적으로 조용한 수주전을 펼쳤다는 평이다.

한편 이번 총회 1차 투표에서는 참석 조합원 2801명(사전투표 66명 포함) 중 과반이 넘는 건설사가 나오지 않았다. 조합 정관에 따라 3위를 제외한 1, 2위 표를 집계한 결과 현대건설이 1409표를 얻어 시공사에 선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한남3구역을 강북 대표 최고 명품 단지로 만들 것이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수주 활동을 이어가

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이주비를 기본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에다 추가 이주비 LTV 60%로 총 100%를 책임 조달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사업촉진비(5000억원)를 포함한 사업 대여자금도 '2조원 이상'으로 3사 가운데 가장 높게 제안했다.

추가 부담금도 입주 1년 후 100%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시 최초 일반분양가 금액으로 100% 대물 변제키로 했다. 아울러 높은 신용등급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 사업비 보증수수료 565억원, 이주비 보증수수료 525억원 등 총 109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가 분양가는 3.3㎡당 평균 3000만원 이상으로, 미분양시 약 2000억원의 추가부담금(가구당 약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상가도 미분양시 100% 대물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최소 50% 수익... 허위·과장 '주식리딩방'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투자 손실, 환불 거부 등 가능성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등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면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용료는 물론 추가조작에 연루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감감독원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우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방식이다.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 행위에 노출돼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

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한다.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들이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광고나 불공정 계약체결, 추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 등의 불법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이베스트투자증권 ETF 거래·지수예측 이벤트

TV·에어컨·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다음달 중순까지 자사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TV·에어컨·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을 통해 국내 ETF를 거래하는 고객은 거래대금 100만원 당 1장, 1인 최대 100장까지 응모권을 받을 수 있다. 응모권 수만큼 다음달 17일 코스피 증가를 예측하는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적중하거나 최대 근사치를 맞춘 투자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LG 올레드 TV·에어컨·다이슨 슈퍼소닉·갤럭시 버즈플러스·신세계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선물한다.



그리고 2019년 6월 이후에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ETF 거래가 없는 투자자들은 10주 이상만 거래하면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 홈페이지시스템(H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에서 확인 가능하다.

/송태화 기자

## 코로나 장기화... 마스크 수출규제 완화 수혜 기대

### 株라쿨라의 종목

오염제어 섬유제품 생산 |케이엠이  
마스크·방호복 사업 부문 급성장  
비말차단용 마스크 승인업체 선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케이엠이'가 수혜주로 떠올랐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은 코로나19 관련 제품 매출 고성장을 전망하며 케이엠이의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예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긍정적' 추가 전망과 함께 적정 추가 3만 1000원을 제시했다. 19일 종가는 1만 7250원이다.

케이엠이는 클린룸에서 사용되는 소모품 제조업체로서 200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주요 사업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클린룸에서 사용되는 마스크, 방진복 등 오염제어 관련 섬유 제품



케이엠 주요 판매 제품.

생산 및 판매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마스크, 방호복 사업 부문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 승인업체에 선정돼 가파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통기성

이 높은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케이엠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판매를 허가했다.

케이엠의 올해 1분기 마스크 매출액은 134억원으로 2019년 매출액 109억원을 상회했다. 1분기 방호복 매출액은 41억원을 기록해 마스크와 함께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연말까지 코로나19 관련 매출의 호조가 예상된다.

또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확대와 수출허가 비용 완화도 호재로 작용한다. 국내 마스크 시장이 공급우위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3장에서 10장으로 늘렸고, 마스크 수출허가 비용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최 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수출규제 완화로 올해 안에 미국, 인도, 유럽은 물론 중남미, 인도네시아 등으로 판매처 확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미경 수습기자 mikyung96@

## 상황따라 투자 비중 조절하는 펀드 출시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플렉스증권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글로벌플렉스증권투자신탁'(이하 한국투자글로벌플렉스펀드)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투자글로벌플렉스펀드'는 플렉서블(flexible) 전략으로 채권 자산을 운용한다. 플렉서블 전략은 다양한 채권자산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것을 뜻한다. 별도의 벤치마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펀드는 글로벌 채권 시장의 국제, 금융채, 회사채, 전환사채 등을 투자자산으로 한다.

한투운용 측은 "위험관리에도 적극적"이라고 소개했다. 재간접형 펀드로 노후라글로벌다이나믹채권펀드에 80~100% 범위 내에서 투자한다. 시장 상황

에 따라 펀드의 투자 비중을 조절해 위험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환헤지 비용이 커지거나 환율 변동이 확대되는 구간에선 거래시점 또는 환헤지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환위험을 관리한다.

김정수 해외픽스드인컴 운용팀장은 "최근 시장 환경은 하나의 채권 자산에만 투자해서 대응하긴 어렵다"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특정한 섹터에만 투자하는 펀드보다 유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움직일 수 있는 플렉서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글로벌플렉스펀드'는 A클래스 기준 선취판매수수료 1%와 연간 총보수 0.84%가 발생한다. C클래스는 선취판매수수료가 없고 연간 총보수는 1.34%다.

/송태화기자 avin@